
인사말



박현우 사무총장

미주 총연이 명실상부한 미주한인 공동체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사무총장 직분을 맡은 것이 2년이 지나고, 이제 제19대를 마감하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니 밀려오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역사적인 미주이민 10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초기 이민자들의 선구자적인 개척정신과 해외독립운동을 선도한 불굴의 애국심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생각할 때에 숙연하고 겸허한 마음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미주 총연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이민정착과 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보존하며 미 주류 사회 참여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안으로는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 각 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간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우리의 응집된 역량을 발휘하여 한민족 집단의 권익을 확보하는 노력과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의 실천적 계승과 미주 총연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힘껏 봉사 해 왔으나, 돌이켜 보면 본인의 부덕함과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제19대 집행부가 연방 면세번호를 획득하고, 모국정부의 총연 지원금 확보, 한글과 영문 웹사이트 구축, 총연 신문의 발행, 9/11 사태의 능동적 대처와 모금활동 등의 가시적인 업무성과를 이루어 내고, 지역 및 광역 연합 한인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미주 총연의 중앙관리 기능을 강화시키고 총연이 명실상부한 미주한인사회의 구심단체로서 체제를 굳혀 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놓은 것 등은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미관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미주 총연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함을 느끼는 이 시대에, 미주 각 지역사회의 최고 지도자이신 여러분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민족 공동체의 추진력을 이루고 선조들의 피땀어린 헌신과 역사적인 기여로 일궈낸 지금의 정착과 안정을 미래의 번영으로 지켜 나감과 동시에 600만 해외한민족의 구심점이 되어 모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염원을 이루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미주 총연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와 격려에 감사 드립니다.

2003년 6월

제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총장 박현우